

석유화학, 녹색 경쟁력 강화 추진

중기청,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전략 전수 ... 온실가스·유해물질 관리

중소기업들이 친환경적인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세우고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다고 6월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평가해주고 특성에 맞춰 녹색 경영전략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석유화학을 비롯한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경영 시스템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녹색경영 평가가 진행된다. 높은 등급을 획득하면 우수 그린 비즈(Green-Biz)로 선정돼 우대를 받는다.

또 전문가가 해당기업을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단기 현장 클리닉, 중·장기에 걸쳐 친환경 경영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돕는 장기 진단·개선 프로그램 등이 운용된다.

중견기업과 협력기업들이 함께 유해물질 관리와 에너지 절감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사업도 전개되는데 완제품이나 부품·소재를 수출하는 중견 모기업을 중심으로 협력기업 5사 이상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야 참가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관리하는 체계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진행된다.

석유화학과 철강, 시멘트, 펄프제지, 비철금속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과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이 지원 대상이다.

모든 사업은 소요되는 총 비용의 75%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며 중소기업 그린넷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15>